

# 포스트모던 가구에 나타난 아르데코의 양식적 특징에 관한 연구

## Art Deco Style in Postmodern Furniture Design

김성아\* / Kim, Seong-Ah

### Abstract

Postmodern designers freely used historical motifs as symbolic expressions or ornamentations. Historical references often became a key to express their ideal against modern standardization. Among the historical references, Art Deco style was frequently appreciated by postmodern furniture designers from the 1960s throughout postmodern era.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way of incorporating Art Deco in postmodern furniture design. Rational Italian designers in Anti-design Movement began to adapt historical motifs and Pop, and this spread out throughout to other Postmodern designers. The research explored how Art Deco and postmodern design are related and what the examples of Art Deco revival in the postmodern era are. In this sense the research mainly covered from the exhibition catalogs from the 1960s to 1990s. As a result of stylistic, symbolic, methodological analysis, Art Deco revival in postmodern era was an essential method to express anti-modern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In postmodern design, Art Deco was one of historical styles that surpass the limitation of modernism, at the same time decorative style that express the postmodern ideal.

키워드 : 아르데코,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

Keywords : Art Deco, Postmodern, Furniture Design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는 모더니즘 시대에 강하게 부정되었던 역사성을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역사적 양식 중 아르데코는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른 어떤 역사적 스타일보다도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에 자주 등장하는 코드가 된다.

이 논문은 이렇듯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아르데코 부흥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역사적 양식들 중에서도 아르데코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한 포스트모던 디자인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 분석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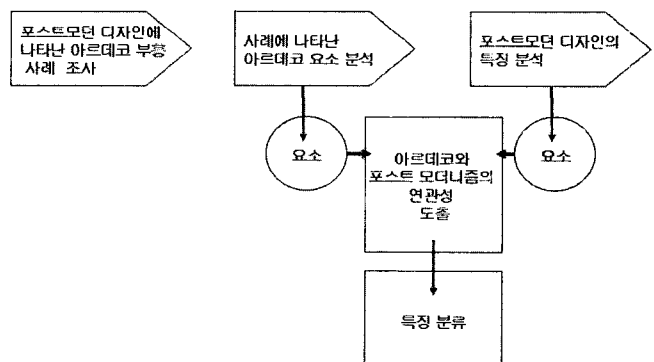
### 1.2. 연구방법 및 범위

첫째, 1960년대 아르데코가 다른 역사적인 양식 중에서도 가장 선호가 되는 배경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의 관련 전시도록과 정기 간행물 등을 분석하여 사회적 배경이 되는 계

기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게 되는 영화나 패션 등에서 나타나는 아르데코 부흥의 사례들을 통하여 배경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둘째, 포스트모던 디자인과 아르데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르데코 부흥이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의 사례를 모아 아르데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이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특징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 아르데코 양식이 가진 의미를 연구하였다<표 1>.

<표 1> 아르데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관성 도출 과정



\* 정회원, 계원조형예술대학 실내건축디자인과 전임강사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출현에 관한 견해는 학자들 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포스트모던 건축에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였던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의 포스트모던 출현에 대한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찰스 젠크스에 의하면 1950년대 후반 팝아트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모더니즘에서 추구하던 제한된 사고에 반대되는 경향이 등장한다. 또한 1960년대에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반디자인운동(Anti-Design Movement)이 일어나면서 기존 모더니즘에 입각한 디자인에 대한 저항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반모더니즘적 성향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인, 1960년대부터의 디자인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시점은 아르데코 양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 2. 아르데코의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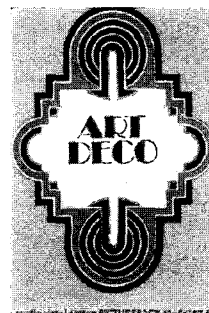
1960년대는 모더니즘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이 일었던 흥미로운 시기이다. 1968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는 ‘삶의 우아함이 배제된 죽음의 종말’이라는 글을 통해 편협하게 전개된 모더니즘의 종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간의 내면성이 반영되지 않은 직선적이고 편협한 모더니즘에서 눈을 돌려 과거를 돌아보는 움직임은 1960년대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아르데코는 단순히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서 부정되었던 역사성을 도구로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전시와 책들을 통해 재평가되고 있었다<표 2>.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기와 전성기였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아르데코에 관한 전시가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그 중에서도 1965년 파리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열린 ‘25년(Les Années ‘25)’ 전시는 아르데코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뒤이어 미국에서도 아르데코 관련 전시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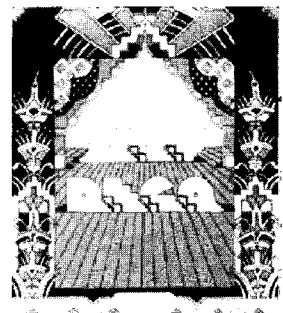
<표 2> 포스트모던 시대의 아르데코 전시

연도	전시명	장소	도시 및 국가
1965	Les Années '25	Musée des Arts Décoratifs	프랑스, 파리
1968-1969	Jazz Age	Brighton Museum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Museum of Art New York, State University College, Potsdam Art Museum	미국
1971	The World of Art Deco	Minneapolis Institute of Art	미국, 미네아폴리스
1973	Die Zwanziger Jahre	Kunstgewerbe museum	스위스, 취리히
1975	1975 Art Deco Exposition at Radio City Music Hall	Radio City Music Hall, Rockefeller	미국, 뉴욕
1975	Art Deco aus Frankreich	Museum für Kunsthandwerk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1976-77	Cinquantenaire de l'Exposition de 1925	Musée des Arts Décoratifs	프랑스, 파리
1979-80	The Thirties	Hayward Gallery	영국, 런던
1983	At Home Manhattan: Modern Decorative Arts 1925 to the Depression	Yale University Art Gallery	미국, 커네티컷

여러 전시와 간행물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는 1968년 베비스 힐리어(Bevis Hillier)의 ‘Art Deco of the Twenties and Thirties’ 발간이다<그림 1>. 이전까지 아르데코는 그저 모던 양식 다시 말해 모데른(Moderne)으로 불리면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프랑스의 장식적인 모던 스타일로 평가 되었다. 192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던(Moderne)양식을 1925년 파리 박람회의 공식 명칭-Paris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을 따서 아르데코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던 이 책이 출간이 되면서 아르데코는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이는 아르데코와 동시대에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이성주의적 모더니즘과는 다른 성향의 모더니즘이라는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베비스 힐리어는 1971년 데이비드 라이언(David Ryan)과 함께 ‘The World of Art Deco’전을 기획하여 미국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서 전시를 열기도 하였으며 아르데코가 대중으로부터 다시 주목받는 데 큰 기여를 했다<그림 2>.



<그림 1> Bevis Hillier, Art Deco of the Twenties and Thirties, London: Studio Vista, 1968 책 표지



<그림 2> The World of Art Deco 전시 도록 표지,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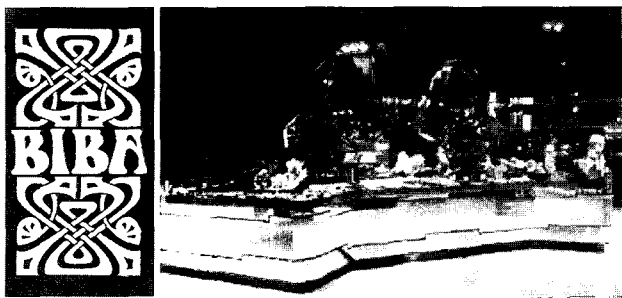
1960년대부터 아르데코라는 명칭과 함께 본격화 되었던 아르데코에 대한 재평가는 1970년대 들어서는 아르데코 50주년 기념 전시들과 함께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먼저 아르데코 50주년을 기념하는 ‘1925년 박람회 50주년전(Cinquantenaire de l'Exposition de 1925)’이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열렸다. 이어 1975년 미국 아르데코의 대표적 건물인 록펠러 센터의 라디오 시티 뮤직 홀(Radio City Music Hall)에서 아르데코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렸다.

이러한 예술계의 관심과 재평가는 대중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미국 경제대공황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니앤 클라이드(Bonnie and Clyde)’가 1967년에 개봉되었고, 무대 세트에 아르데코 스타일이 재현되어 아르데코 스타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미 아르데코의 부흥이 시작된 것을 1969년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르데코는 “여기 미국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신발부터 전등갓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부흥되고 있다.”<sup>1)</sup>

1970년대부터는 인테리어디자인에서도 아르데코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 영국에 새로 오픈한 비바(Biba) 상점<sup>2)</sup>의 카운터는 아르데코 부흥스타일로 꾸며졌다 <그림 3, 4>. 비바의 로고는 아르누보(Art Nouveau) 스타일이며, 패션 스타일은 아르 데코와 할리우드적 스타일들로 채워졌다. 이 시대의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비바 상점에서 모더니즘과는 상반되는 자유분방함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양식들이 대중적 관심을 끌며 비바가 이 시대의 자유로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1970년대 소더비(Sotheby's) 경매에서는 아르데코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sup>3)</sup> 또한 수집가들의 관심으로 아이린 그레이(Eileen Gray)와 같은 프랑스 아르데코 디자이너들의 가구가 재생산(Reproduction)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sup>4)</sup>



<그림 3> John McConnell, Biba Logo, 1968

<그림 4> The Jewelry Department of the newly opened Biba shop in the old Derry & Toms Building, 1973

### 3. 포스트모던 가구에 나타난 아르데코의 특성

<표 1>과 같이 포스트모던 가구에서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포스트모던 가구에 나타난 아르데코의 특성은 지그재그와 유선형과 같은 형태적 영향, 은유적 기호, 수공예 부흥 등 세 가지의 특징으로 분류되었다<표 3>. 물론, 한 디자인에 복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1)Bevis Hillier and Stephen Escritt, Art Deco Style, Phaidon, London, 1997, p.223  
 2)비바는 1964년 처음 런던에 오픈하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문을 연 백화점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3)Hillier and Escritt, Op. Cit., pp.216-217.  
 4)Patricia Bayer, Art Deco Interiors: decoration and design classics of the 1920s and 1930s, Thames and Hudson, New York, 1998, p.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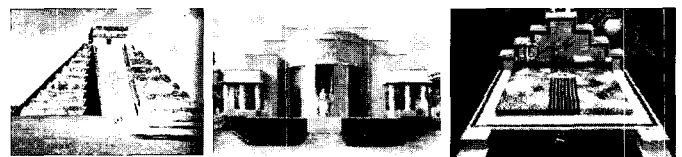
<표 3> 아르데코와 포스트모던 요소 분류

포스트모던 디자인 사례의 아르데코 요소		특성 분류 및 연구 방법 추출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일반적 특성	
조형적 특성	형태	지그재그, 유선형	역사성	
		태양광선, 꽃, 원시성		
방법적 특성	색	블랙, 레드, 실버	엘리트코드	
		수공예	장인정신을 발휘한 수공예 제작	장식성
	재료	고가의 수입재료	상징성 분석	상징성
	원시성을 타나내는 재료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를 이용한 현대적 제작	방법적 분석	

#### 3.1. 조형적 분석

##### (1) 지그재그(zigzag)

이태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부흥된 아르데코는 주로 아르데코의 전체적인 형태적 특징을 기본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르데코 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아즈텍(Aztec) 문명의 피라미드 건축에 나타나는 계단모양의 지그재그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그림 5>. 아르데코에서는 큐비즘에서 이끌어낸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두드러진다. 육면체를 다시 분할하여 지그재그 형식으로 나누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분할 방식이 건축에서도 나타나 계단모양의 외곽선으로 나타난다. 1925년 파리박람회의 전시관이었던 ‘수집가를 위한 집(House for a Collector)’은 이러한 면분할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고전적 건축구조를 분할하여 재배열한 형태이다<그림 6>. 이것이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형태인 지그재그이다.



<그림 5> 아즈텍 문명의 피라미드, Mexico

<그림 6> House for a Collector, 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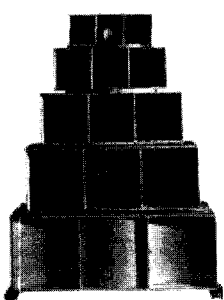
<그림 7> Archizoom Associati, Presagio di Rose, 1967

이태리에서는 1960년대 모던디자인의 이성주의에 의해 제한되었던 것들에 대한 반디자인 운동(Anti-design Movement)이 전개가 되었다. 1966년 결성된 아키즘 어소시에티(Archizoom Associati)는 이태리에서 일어난 반디자인운동의 하나로 디자이너 안드레아 브란지(Andrea Branzi), 길베르토 코레티(Gilberto Coretti), 파올로 데갈넬로(Paolo Deganello), 마시모 모로지(Massimo Morozzi) 등으로 구성되었다. 1967년 디자인된 아키즘의 <Presagio di Rose>침대를 보면 계단모양의 지그재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재료는 아르데코 양식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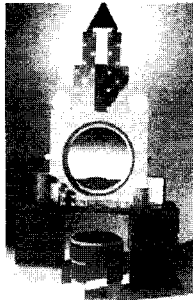
요소인 동물 털의 패턴이 있는 천을 침대 시트에 도입하고 있다. 이 그룹은 “아르테코와 팝 아트 모티프를 병치해서 모더니즘의 표준에 대한 반항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육면체의 이성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나 불규칙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는 지그재그 선들을 조롱하고 있다.”<sup>5)</sup>

이들은 모더니즘에 의해 거부되었던 장식성을 간결한 형태의 틀 내에서 표현한다. 아르테코 스타일은 탈근대이면서 근대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포스트모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그룹은 1972년 해체되지만 이들의 반디자인적 경향은 1982년 결성된 Memphis 그룹에 의해 계속되게 된다. 가구에서 나타난 아르테코의 재해석이 이루어진 최초의 가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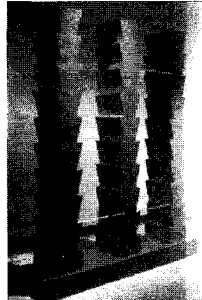
아키즘에서 비롯된 반디자인 성향은 그룹이 1972년 해체된 이후 1981년에 결성된 Memphis에 의해 이어지게 된다. 이탈리아의 에토르 소사스(Ettore Sottsass)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일본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된다. 많은 Memphis 그룹의 가구들은, 선행되었던 아키즘의 디자인이 그랬듯이, 아르테코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본 형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육면체의 이성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나 불규칙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는 지그재그 선들은 반디자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그림 8>.



<그림 8> Mario Bellini, Onda Quadra Shelves, 1981



<그림 9> Michael Graves, Plaza Dressing Table,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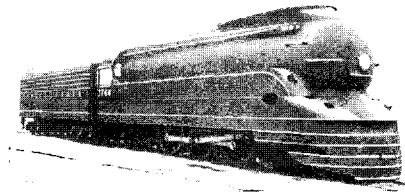


<그림 10> Ettore Sottsass, Adesso Perro, 1992

Memphis의 첫 전시를 위해 1981년 미국의 포스트모던 건축가인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가 디자인한 ‘Plaza’ 화장대 <그림 9>는 할리우드의 환상과 아르테코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과거 할리우드 영화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조명과 지그재그의 과장된 형태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와 간결한 형태에 대한 반항이며,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고 있다. 이 것은 Memphis가 추구하는 인용과 장식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에토르 소사스는 이러한 반모더니즘적 형태를 이용한 가구디자인을 20세기말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 (2) 유선형

지그재그한 형태와 함께 아르테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양식적 특징은 유선형이다. 원래는 제 1차대전 이후 유체연구의 결과로 속도를 위한 효율적인 형태로 운송기디자인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아르테코 시대에 많은 산업디자이너들에 의해 스타일링을 목적으로 토스터기 청소기들을 비롯한 모든 생활용품 디자인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었던 것이 유선형이었다 <그림 11>. 이렇게 대표적인 아르테코 양식의 특징인 유선형은 포스트모던 가구에도 자주 등장하는 양식적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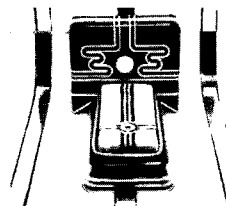


<그림 11> Raymond Lowery, Pennsylvania Railroad, 1936

1960년대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전후부터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터(Fiberglass Reinforced Polyester)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1960년대에는 ABS,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다양한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가구까지 다양한 플라스틱 성형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는 초기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Bakelite)가 사용된 아르테코 시대에 효율적인 성형을 위해서 더욱더 증가되었던 유선형의 사용이 1960년대 이후에도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키즘 어소시에티의 ‘Dream Bed’<그림 12>에서는 미국적 아르테코의 특징인 유선형(Streamline)을 이용하여 속도감을 강조한 형태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되었던 <Dream Bed> 시리즈 중 하나로 아르테코 양식은 모더니즘에서 성립되었던 표준에 대한 반지위적이고 반세련됨을 표현하기 위해 팝아트 모티프와 함께 절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침대의 시트에는 밥 딜런(Bob Dylan)의 얼굴<그림 13>이 그려진 침대 시트를 사용함으로써 팝 아트와 아르테코의 요소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모더니즘의 반항적인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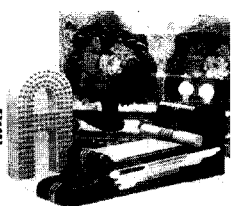
또 다른 ‘Dream Bed’ 시리즈<그림 14>는 유선형의 침대 형태와 함께 전형적인 아르테코의 색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테코



<그림 12> Archizoom Associati, Dream Bed, 1967



<그림 13> Detail of Dream B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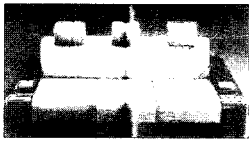
<그림 14> Archizoom Dream Bed, 1967

5)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사, 서울, 1998. p.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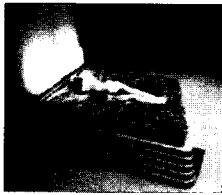
에서는 오리엔탈리즘과 포비즘(Fauvism)의 영향으로 강렬한 색채들이 주를 이루었고 대표되는 색은 검정색, 빨강색과 은색이었다. 베이클라이트의 검정색 바탕에 금속성의 소재를 이용하여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은색톤의 선들이 그 대로 아르테코의 색감과 선들을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다.

아키즘의 대표 구성원이었던 에토르 소사스는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이태리에 있는 가구회사인 폴트로노바(Poltronova)로부터 가구디자인 의뢰를 받는다.<sup>6)</sup> 소사스는 이 회사를 위해 디자인한 가구들 <그림 15, 16>에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glass)를 이용하여 성형한 전체 가구의 형태는 플라스틱 성형에 적합하도록 유선형의 형태를 선택했다. 이는 아르테코 시대에 베이클라이트(Bakelite)를 이용하여 라디오의 형태들이 유선형으로 성형되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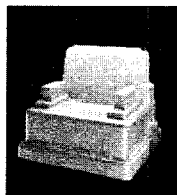
소사스가 폴트로노바를 위해 디자인한 가구 중에서 침대<그림 16>는 유선형의 형태에 유리섬유(Fiberglass)로 성형이 된 침대시트에 사용된 동물의 가죽은 프랑스 아르테코에서 아프리카의 영향으로 원시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요소였다. 이러한 경향은 후에 뎀피스의 멤버였던 마르코 자니니(Marco Zanini)의 의자 디자인에도 잘 나타나 있다<그림 17>. 플라스틱 성형의자에 적합한 형태를 통해서 기능적인 간결한 모더니스트의 의자가 아닌 우상적인 의자의 형태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15> Ettore Sottsass, Visir, Poltronova, 1970



<그림 16> Ettore Sottsass, Il Movili Brigi Poltronova Fiberglass,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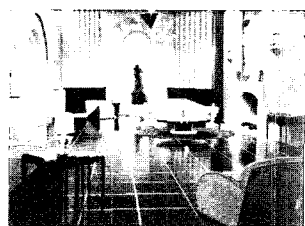


<그림 17> Marco Zanini, Roma Armchair, 1986

유선형의 가구디자인의 부흥은 플라스틱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도시 컬렉션(Dorsey Collection)의 소파 디자인은 아르테코의 전형적인 유선형의 소파형태를 좀 더 해학적인 형태로 이끌어내고 있다<그림 18>. 이는 아르테코의 대표적인 무대디자인이었던 영화 'Our Dancing Daughter'에 등장하는 소파와 유사한 형태이다<그림 19>.



<그림 18> Michael Graves, Dorsey Collection, 1990



<그림 19> Set Design for Our Dancing Daughter, 1928

6)Barbara Radice, Ettore Sottsass: A Critical Biography, London, 1993, pp.146-147.

## 3.2. 상징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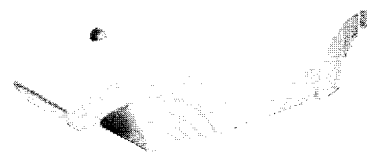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이미지를 통한 상징적인 효과를 의도한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은 직접적으로 형태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간접적으로 대중성과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은유적인 기호로서 포스트모던 가구에 등장한 아르테코는 1980년대에 등장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성은 엘리트 코트와 대중적 코트의 이중적 기호와 원시성과 같이 아르테코의 특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은유적 기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이중적 기호

1981년 밀라노에서 있었던 뎀피스 첫 전시에 전시되었던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 한스 홀레인(Hans Hollein)의 마릴린 소파<그림 20>는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모티브로 한 의자이다.<sup>7)</sup> 이 가구에서는 아르테코 스타일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대중문화와 혼재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에 의하면 포스트모던은 의사전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엘리트 코드(elite code)와 대중 코드(popular code)의 이중코드(double coding)를 사용한다고 정의한다.<sup>8)</sup> 홀레인의 의자에서는 아르테코라는 엘리트 코드와 마릴린 먼로라는 대중적 코드가 이중적 언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젠크스에 의하면 이중코드는 아이러니, 모호한 표현, 모순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과거를 통한 현재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9)</sup>

미국의 포스트모던 가구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끌었던 건

축가들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부흥된 아르테코 양식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츄리(Robert



<그림 20> Hans Hollein "Marilyn" sofa, by Poltronova, 1981

Venturi)와 그의 아내 스콧 브라운(Scott Brown)은 미국 가구회사인 놀 인터내셔널(Knoll International)을 위해 시리즈의 가구를 디자인했다<그림 21>. 이 시리즈는 각각 역사적 스타일-쉐라톤, 고딕, 퀴엔, 아르누보, 아르테코, 비더마이어, 앙피르, 치펜데일 등-의 이름을 붙였다. 가구들은 곡목된 합판위에 폴리크로미(Polychromy)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역사적 스타일을 평면에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 아르테코 의자<그림 22>는 태양을 기하학적 모티브로 사용한 아르테코의 대표적 모티브를 장식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츄리에 의

7)Charles Jencks, Post-modernism, Rizzoli, New York, 1987, p.340.

8)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백석중,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태림문화사, 서울, 1991, 7.

9)Jencks 1987, Op. Cit., p.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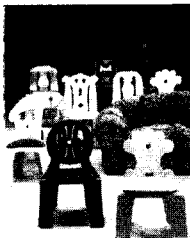
해 재해석된 아르데코 스타일은 평면적이고 장식적이면서 아르데코에 등장하는 패턴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 다른 가구들과 다른 특징이다.

단순화된 꽃을 중심에 배치하고 태양의 빛이 비치는 모습을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화된 꽃은 아르데코에서 주로 기하학적인 모티브로 단순화 하여 표현되었던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태양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이중적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 아르데코의 상징적인 모티브를 평면에 은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사성을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의자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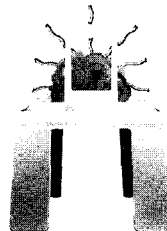
(2) 은유적 기호

은유적 기호는 많은 앞서 언급되었던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형태를 은유적인 기호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등장하는 은유적 기호적 요소는 원시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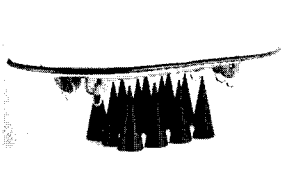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들에 의해 부흥되었던 대표적인 아르데코 요소 중 하나가 아프리카 원시 미술의 영향이다. 아르데코 시대에는 재즈와 함께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아프리카 원시미술에 대한 관심은 아르데코 양식에 원시적 요소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시성 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부흥되었으며, 은유적으로 아르데코 양식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그림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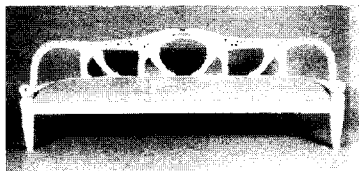
<그림 21> Robert Venturi and Scott Brown, 1984 Knoll International



<그림 22> Robert Venturi and Scott Brown, Art Deco Chair, 1984



<그림 23> Wendell Castle, Never Complain, Never Explain, 1985



<그림 24> Judie McKie, Bench, 198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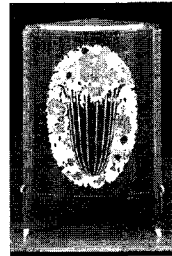
3.3. 방법적 분석

(1) 수공예 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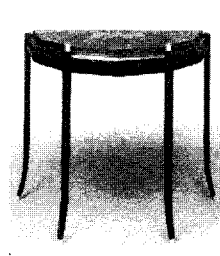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미국에서는 대량생산되고 획일화된 모던디자인에서 결여된 개인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공예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수공예부흥

운동은 도예, 유리, 가구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데 특히 가구에서는 스튜디오페니체 운동으로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공예 부흥 운동은 최고의 수공예 정신(craftsmanship)과 최상의 수입 재료들에 의해 탄생한 화려한 아르데코 가구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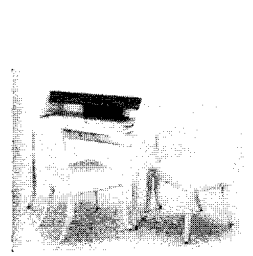
미국의 스튜디오페니체를 대표하는 웬델 캐슬(Wendell Castle)은 1980년대부터 프랑스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에밀 자크 룰만(Emile-Jacque Ruhlmann 1879-1933)의 영향을 받은 가구를 디자인하기 시작한다<그림 25>. 룰만의 대표적인 가구를 보면 18세기 프랑스 가구의 형태를 기본 틀로 하고 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흑단이나 장미목에 상아(ivy)로 상감하여 아프리카의 이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6>. 1925년 룰만의 가구가 파리박람회를 통해 선보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세련된 형태를 보여주며 가장 매력적인 루이 16세 가구에 견줄만한 가구”라고 평가되었다.<sup>10)</sup>



<그림 25> Emile-Jacque Ruhlmann, Corner Cabinet, c.1916



<그림 26> Wendell Castle, Demilune Table, 1981



<그림 27> Wendell Castle, Lady's Desk with Two Chairs, 1981

캐슬의 가구에는 이러한 룰만의 영향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장미목 위에 상아로 다리 위와 아래 끝부분을 장식하고 다리의 선을 따라서 상아로 점들을 상감한 것들은 뚜렷한 룰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스튜디오페니체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던 캐슬은 가장 눈부신 수공예정신을 보여주었던 룰만의 가구를 다시 부흥하는 움직임 보였다. 또한 룰만의 영향을 받은 상감 패턴들을 역으로 밝은 목재에 어두운 흑단으로 상감한 가구들을 디자인하기도 한다<그림 27>.

(2) 재료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르데코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서 언급된 유선형에 주로 사용되었던 플라스틱이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프랑스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이국적인 재료와 값비싼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도 포스트모던 시대에 부흥되었다. 프랑스의 가구디자이너들에게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상아, 수입목재, 상아가죽 등 고가의 수입재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크 룰만은 이러한 디자이너들 중 하나이다. 포스트모던 가구디자인에서 동물의 모피(Fur)와 같은

10) Kathryn Hiesinger, Landmarks of Twentieth Century, Abbeville Press, 1993, pp.66-67.

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아르데코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료들은 특히 캐슬과 같은 스튜디오페니처에서 부흥되었다. 이러한 고가의 재료들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재료가 수공업으로 제작되는 스튜디오페니처에서 부흥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겠다. 또한 단순히 스타일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룰만의 가구가 가지고 있는 에베니스테 (ébéniste)<sup>11)</sup>와 견줄만한 수공업정신 (craftsmanship)을 부흥시킨 것이 캐슬의 가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건축가들에 의해 부흥된 아르데코 스타일과는 구별이 된다.

#### 4. 결론

1960년대는 다른 어떤 역사적인 양식 중에서도 아르데코 양식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증대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르데코 양식이 부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활발하게 등장한 배경에는 아르데코 50주년을 즈음하여 이루어졌던 연구와 전시들이 있었다. 또한 이는 아르데코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까지 증대되었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 아르데코는 상징성, 장식성, 역사성,

다의성을 보여주며 1960년대 이후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가구디자인에서는 1967년 이태리의 반디자인 그룹인 스튜디오 알키움에 의해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차 은유적 표현과 수공업적인 부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20세기 말까지 등장하였다<표 4>.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성기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아르데코의 영향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표 4>와 같이 조형적, 상징적, 방법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아르데코 부흥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표 4>를 통하여 연구를 정리하여 본 결과 형태적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고, 이렇듯 형태적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바우하우스적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더니즘안에서도 바우하우스의 이성주의적 디자인이 아닌 역사성과 장식성을 지닌 모던 운동이었던 아르데코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서 부정되었던 것들-특히, 장식성과 역사성-을 통하여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고찰 결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즘의 장식성과 간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형태와 색에서 연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징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아르데코 양식은 엘리트 코드와 역사성을 상징하는 하나

<표 4> 시대에 따른 분류 분석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사진												
조형적 요소	지그재그	0				0		0			0	
	유선형		0	0	0		0			0		0
	꽃가지									0		
	태양광선									0		
	색채		0							0		
	기타									0		
상징적 요소	이중적 기호									△	△	
	은유적 기호	△			△		△			△		
방법적 요소	수공업					0				0		
	재료		0	0	0			0		0		
공통 특성		장식성 역사성을 지닌 동시에 탈근대를 위한 수단										

11) 루이 14세때 프랑스 왕정을 위해서 무늬목을 이용한 가구를 제작하였던 최고의 수장을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에베니스테는 앙드레 찰스 불 (Andre Charles Boulle)이 있다.

의 코드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방법적 특성에 의한 고찰 결과, 플라스틱이나 고가의 수입재와 같은 공통적인 재료 사용과 수공예 제작이 부흥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아르데코 양식은 반디자인 운동과 함께 이성주의에 의한 표준화된 가구가 아닌 자유로운 개인성을 표출하기 위한 역사적 수단인 동시에 소통의 수단이었다. 또한 아르데코 양식은 가장 장식적인 모던 양식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장식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거부하면서 추구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렇듯 아르데코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다의적 성향-탈근대주의이면서 모더니즘의 연장과 초월을 동시에 포함하는 성향-을 포괄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모던 스타일인 것이다.

### 참고문헌

1. Bayer, Patricia. Art Deco Interiors: decoration and design classics of the 1920s and 1930s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8.
2. Collins, Michael and Andrea Papadakis, Post-Modern Design Rizzoli, New York, 1989.
3. Fiell, Charlotte and Peter. Design of the 20th Century, Taschen, 1999.
4. Greenburg, Cara ed., 1975 Art Deco Exposition at Radio City Music Hall [exh. cat., ], 1975.
5. Hiesinger, Kathryn. Landmarks of Twentieth Century, New York: Abbeville Press, 1993.
6. Hillier, Bevis. Art Deco of the 20s and 30s, The Herbert Press, 1968.
7. Hillier, Bevis and Stephen Escritt Art Deco Style London: Phaidon, 1997.
8. Hanks, David A. Design for Living: furniture and lighting 1950-2000 Montreal, 2000.
9. Jackson, Lesley. The Sixties: the decade of design revolution, London: Phaidon, 1998.
10. Jencks, Charles, Post-modernism, Rizzoli, New York 1987.
11. Jencks, Charles, What is Post-Modernism? 3rd ed London: Academy Edi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9.
12. Jencks, Charle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백석중,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초판, 태림문화사, 1987.
13. Radice, Barbara, Memphis: Research, experiences, results, failures and successes of new design. Rizzoli, New York, 1984.
14. Taragin, Davira Spiro and Edward S. Cooke Jr., Joseph Giovanni, Furniture by Wendell Castle, New York, 1989.
15.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초판, 시공사, 서울, 1998.
16.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포스트모던, 해체의 이해 안그라픽스, 1994.
17. [http://www.qdesign.co.nz/designhist\\_postmod.html](http://www.qdesign.co.nz/designhist_postmod.html)
18. <http://www.ruhlmann.info/>
19. <http://www.jahsonic.com/MarilynZurmuehlen.html>
20. <http://ata.hannam.ac.kr/aaj/post-m.htm>
21. <http://www.bibaexperience.com/>
22. <http://www.lyoncapitale.fr/cahiers-speciaux/iac/iac-2.html>

<접수 : 2006. 10. 31>